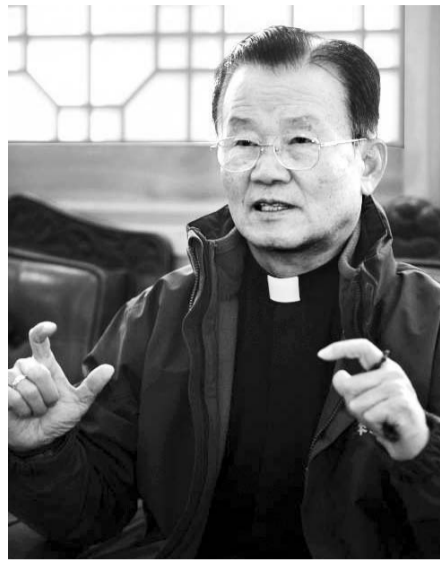


'5월의 사제' 故 조비오 신부 국민훈장



故 조비오 신부.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부 '민주주의 발전 유공' 신설 이한열 열사 모친 등 12명 수여

'5월의 사제' 조비오(1938~2016) 신부가 10일 '민주주의 발전 유공'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정부는 이날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조 신부 등 민주화 운동가 1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올해 신설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부문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조 신부는 최초로 계엄군의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1976~1981년 광주시 동구 계림동성당 주임신부를 맡았던 그는 5·18 당시 시민수

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시민과 함께 했다. 그는 신군부에 체포돼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조 신부는 지난 1989년 5·18 진상규명 국회 광청문화회에 참석해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기총 사격을 했다는 것을 최초로 증언했다. 2006년 은퇴한 이후에도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했으며, 2008년에는 천주교 명에 고위 성직자이자 교황 명에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 명예회장도 훈장을 받았다.

화순 출신으로 광주 동산초, 동성중, 진흥고를 졸업한 이 열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을 규탄하고 호헌 철

폐를 외치다 목숨을 잃어 6·10 민주항쟁을 앞당겼다.

배 회장도 1998~1999년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을 통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밖에 박종철 열사 부친 고(故) 박정기 전 유가족 이사장, 전태일 열사 모친 고(故) 이소선 전 유가족 회장, '전태일 평전' 저자 고(故) 조영래 변호사, '길 위의 목사' 고(故) 박형규 목사도 훈장을 받았다. 고(故) 지학순 주교,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고(故) 김진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에게도 훈장이 추서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국신협 가톨릭협의회, 2020 정기연수회 개최



한국신협 가톨릭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광주방림신협 이사장)는 2020년 정기연수회를 9일과 10일 이틀동안 목포시 산정동 한국레지오마리아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한국신협가톨릭협의회 제공>

농협 전남본부, 완도 어룡도 주민에 생수 2000명 전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오른쪽 5번째)는 9일 빗물정수시설이 고장난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주민을 위해 노화농협에 생수 2000병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소방본부, 영농철 부족한 일손 돕기 나서



전남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9·10일 나주시 남평읍, 다도면 소재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번 봉사에는 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과수밭 농가를 찾아 제때 수확이 절실한 양파, 마늘 등 밭작물을 비닐 토마토 순치기 작업 등을 도왔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예륜협동조합, 광산경제백신 펀딩에 천만원



전시기획 전문 단체 예륜협동조합은 지난 9일 광산구청장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산경제백신 펀딩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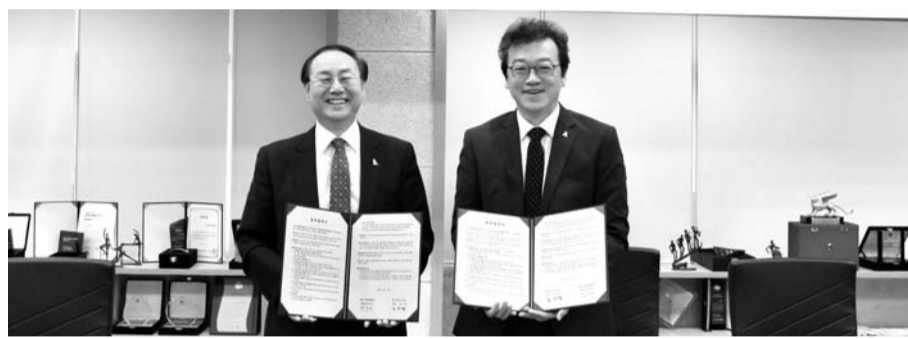
예륜협동조합은 지난달 26일부터 6일간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열린 '광산아트마켓' 행사 수익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광산구가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한 '광산아트마켓'에는 중견작가 17명, 청년작가 16명, 여성작가 5명

등 총 38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출판작 중 107여점이 판매됐다.

오창록 예륜협동조합 대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문화예술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생과 연대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광산경제백신펀딩에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예술위,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왼쪽)는 지난 9일 문화예술, 출판, 인문(독서)의 의미와 가치 확산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출판·인문(독서)의 의미와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선, 예술위에서 선정한 문학나눔 도서와 아코르디언창작기금 선정작가에 대한

전자책 제작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학나눔-세종도서 간 활용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하고 문학주간-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유사사업 간 연계로 인문독서문화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관 위원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작품들이 예술위와 출판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향유자들에게 소개되고 소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TV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 맛에 산다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끈대인턴(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	00 영혼수선공(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험세계
[1]	00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푸르기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테데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아기상어 울리 두루두루			00 뉴스브리핑
[3]	00 출동! 유추구조대 30 영상앨범 선(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스페셜	00 기본 좋은 날(재)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도봇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30 생생 월드인뷰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정글의 법칙(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8]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이십세기 히트-트송	55 끈대인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다큐 인사이드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5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6개월 후만남사이다 작은 집에서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숨터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살림하는 남자들(재)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0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지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40 나이트라인

EBS1

07:0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45 허풍선이 음악쇼
07:15 애코와 친구들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 하니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EBS 마스터	19:00 말괄량이 삤삤
07:45 로보가 폴리	13:00 명의	19:30 최고다! 후기심착지
08:00 딩동댕 유치원	13:50 EBS 스페이스 공감	19:45 자이언트 팽TV
08:30 띠띠뽀 띠띠뽀	14:40 아기 동물 귀여워	20:00 극한직업
08:45 워킹맘 뮤직박스	15:0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00 레인보우 루비	15:1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재)	<중국 소수민족기행-어린이 된다는 건>
09:15 또깨비 가족	15:25 띠띠뽀 띠띠뽀(재)	21:30 한국기행
09:30 몰랑	15:55 또깨비 가족(재)	<아니 벌써, 여름 4부>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10 레인보우 루비(재)	바라지길 따라 걸다 보면
10:30 한국기행(재)	16:25 워킹맘 뮤직박스(재)	21:50 다큐 잇it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0 딩동댕 유치원(재)	22:40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00 EBS 뉴스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2:00 EBS 정오뉴스	17:20 개구쟁이 스머프	23:45 EBS 명강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1일(음 윤4월 20일 乙酉)

<p>36년생 잡는 것이 곧 덕이 아니라, 48년생 여가지에서 불편한 문제들이 속출하는 대목이로다. 60년생 버리지 않으면 폐해가 속출하게 되어있다. 72년생 해묵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 84년생 능력에 맞는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96년생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꿴다면 끝까지 속 썩일 것이니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 27, 63</p>	<p>42년생 불안정한 바탕 위에 놓여 있다. 54년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순리임을 알아. 66년생 방심하다가 큰 혼란이 사라질 것이다. 78년생 구상만 할뿐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80년생 골짜길 여유마저 없는 형세이다. 02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1, 90</p>
<p>37년생 일회용비가 수시로 교차하는 국면이다. 49년생 기존의 틀이 불편하다면 차제에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도 괜찮다. 61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인데 괜히 굶어서 부스럼을 내지 말자. 73년생 안분지족 할 줄 알아. 85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97년생 세월이 흘러 버릴 뻔한 비밀을 소상히 듣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54</p>	<p>31년생 흥왕의 기운이다. 43년생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55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67년생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다잡아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79년생 너무 어찌구무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91년생 연행을 삼가치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42, 69</p>
<p>38년생 한시도 쉴 수 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50년생 크게 상관될 바가 아니라 기존의 도량대로 추진하라. 62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74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86년생 함께 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98년생 본격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92, 73</p>	<p>32년생 길고 짧은 것은 비교해 봐야 알 것이다. 44년생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 56년생 조금 모자라긴 해도 양호한 편이다. 68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80년생 암암에 떠다니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다. 92년생 모든 것을 차치하고 속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백 번 낫다. 행운의 숫자 : 29, 51</p>
<p>39년생 변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51년생 함께하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되겠다. 63년생 상황을 뒤집을 만한 일이 발생하라. 75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이리라. 87년생 지금이야말로 제때를 만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99년생 실제의 현장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0, 68</p>	<p>33년생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45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57년생 진흙이 혼재하면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69년생 다양한 기회를 갖되 선택은 신중히 하라. 81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목이다. 93년생 어두운 동굴 속 같은 비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6, 97</p>
<p>40년생 큰 가닥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52년생 안심해도 되느니라. 64년생 근소한 차이가 천지간이 될 것이다. 76년생 예비 작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88년생 연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계구실을 자초 하리라. 00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행운의 숫자 : 00, 64</p>	<p>34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 가면 그만이다. 46년생 길사와 연결 될 가능성이 확연해진다. 58년생 아직은 모호하니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한국이다. 70년생 현실적이고 가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방하다. 82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라. 94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62</p>
<p>41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류가 있다. 53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 65년생 가깝고 있어도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77년생 조짐이 심상찮으니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 89년생 소문은 사실보다 과장되어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01년생 평상시에 보여줘라. 행운의 숫자 : 33, 60</p>	<p>35년생 평판을 의식하다보면 부자연스러울 것이니 소신대로 임할 바이다. 47년생 허자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59년생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71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83년생 여러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뜻밖의 해결책이 나온다. 95년생 음식은 갈수록 즐기고 맑은 갈수록 보태진다. 행운의 숫자 : 23, 66</p>